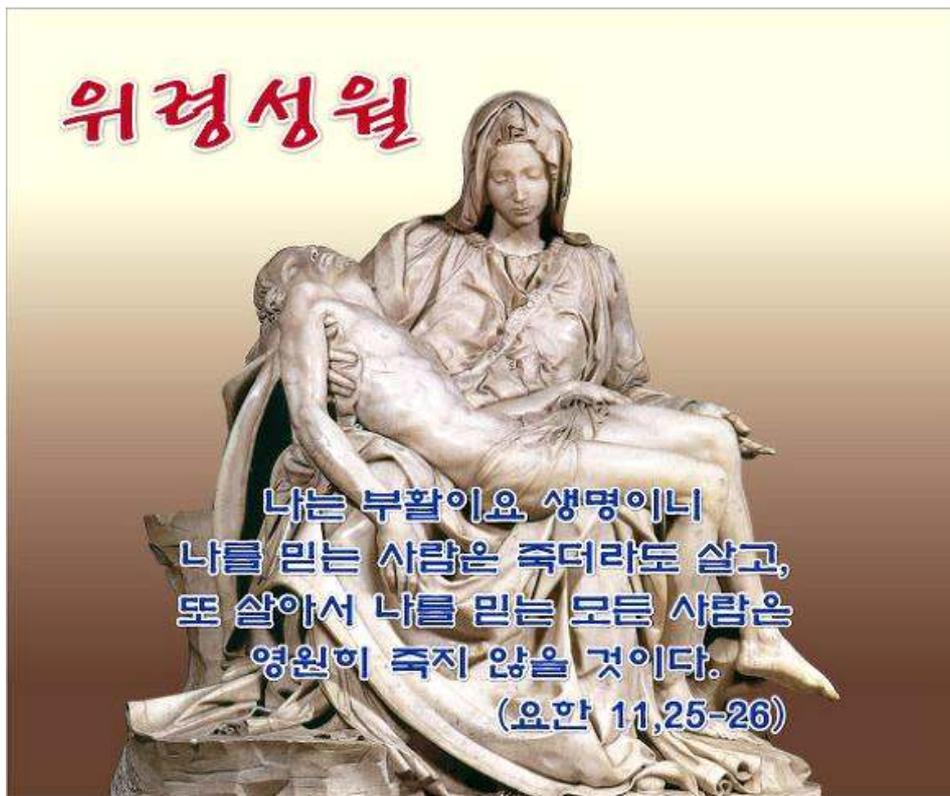


만남

2023년 11월
통권 22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위령 성월 기도문	-----	3
바티칸 소식	-----	4
신앙 나눔	-----	11
현대 영성	-----	12
소공동체 모임 자료	-----	15
교리 특특	-----	18
축일을 축하합니다	-----	21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2
공동체 소식	-----	23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4
월중 행사표	-----	25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6
미사안내	-----	27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교황님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황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맡겨진 양 떼와 동행해 나가시도록 기도합시다.



♥ 위령 성월 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2023년 11월 19일, 연중 제33주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표징이며 우리 공동체 삶의 버팀목입니다. 이 거행이 교회의 사목 안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날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고자 일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빈곤의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지경까지 불어나,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도움과 원조와 연대를 구하는 형제자매들의 요청이 너무도 큼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청빈의 삶을 살고 가난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님께 다시 한번 얻고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전 주일에 주님의 식탁 둘레에 모입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증언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구약성경 본문이지만 사로잡는 힘이 있고 지혜가 가득한 토빗기 목상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저자의 메시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정생활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토빗은 긴 여행을 앞둔 아들 토비야를 껴안습니다. 나이 든 토빗은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영적 유언’을 남깁니다. 토빗은 니네베로 유배를 왔고 이제는 눈까지 멀게 되어 가난의 이중고에 놓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 이름의 뜻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로 또 좋은 아버지로 아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따라야 하는 바른길을 증언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토빗 4,5).

나이 든 토빗이 아들에게 하는 당부는 그저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간구하는 데에 그치지 말라는 것임을 이 대목에서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행을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어서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토빗 4,7).

이 현명한 노인의 말은 우리를 꼼꼼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토빗이 자선을 베푼 다음에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스스로도 말했다시피 토빗은 젊어서부터 자선을 베푼 데에 온 삶을 바쳤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 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 주었다”(토빗 1,3.17).

이러한 자선 활동을 이유로 임금은 그에게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그를 극빈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토빗을 필요로 하였고, 토빗은 자기 직책을 되찾은 뒤에도 자신이 해왔던 일을 용감하게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일 수도 있는 토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그때에 내가 아들 토비야에게 말하였다. ‘얘야, 가서 니네베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얘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토빗 2,1-2). 가난한 이들의 날에 우리가 토빗의 이러한 관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찬의 식탁에 함께한 뒤에 누군가를 초대하여 주일 만찬을 함께 나누는다면, 우리가 거행한 성찬례는 참으로 친교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대에 모인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임을 참으로 깨닫고 우리의 축제 음식을 곤궁한 이들과 나누는다면 우리의 형제애가 얼마나 더 잘 드러나겠습니까!

토비야는 아버지 분부대로 따랐으나, 한 가난한 이가 살해당하여 장터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나이 든 토빗은 잔칫상을 뒤로하고 주저 없이 일어나 그를 묻어 주려고 나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온 토빗은 마당에서 잠들었는데 참새 똥이 두 눈에 떨어져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토빗 2,1-10 참조). ‘선행을 하는데 벌이 따르다니 이 무슨 운명의 아이러니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지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토빗이 눈멀게 된 것은 주위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가난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시력을 돌려주시고 아들 토비야를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토빗이 아들의

목을 꺾이고 울면서 ‘애야, 네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빛인 네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별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야를 볼 수 있게 되었다’”(토빗 11,13-14).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민족 사이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용기와 내면의 힘을 토빗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토빗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충실한 남편이며 인자한 아버지인 토빗은 고향에서 멀리 추방되어 불의를 겪고 임금에게 박해당하며 이웃에게 냉대받았습니다. 그토록 착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시련에 놓였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가르치듯이, 하느님께서 의로운 이들에게 시련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에 토빗은 자신의 가난을 발견하고는 가난한 다른 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느님의 법에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을 직접 느꼈기에 실제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하고 아들 토비야에게 전하는 말은 그의 참된 유언이 됩니다. 곧,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라는 토빗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여 봅시다. 모든 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피부색도, 사회 계층도, 출신도 무관합니다. 나 자신이 가난할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안녕을 지키려는 무관심과 빠른 핑계를 떨쳐버리고 모든 가난한 이와 모든 형태의 가난을 알아보라고 부름받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특히 섬세하게 헤아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풍족한 생활양식을 택하라는 압박이 커져 가는 반면,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무시당하곤 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두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는 반면, 신체적 특질을 삶의 우선 목표인 양 찬양합니다. 가상 현실이 실제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점점 더 쉽게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가난한 이들은 찰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되지만, 우리는 살과 피를 지닌 그들을 거리에서 마주친다면 성가셔하며 외면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날마다 동반자가 된 조급함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른 이를 돌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 참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마다에게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위탁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선을 베풀도록 성금을 내는 것도 관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자선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한 이들과 배척받는 이들을 돌보는 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와 각계각층의 그들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고 기꺼이 도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초인적 영웅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 곧 스스로 묵묵히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엇을 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관계를 맺으며, 가난한 이들의 처지와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필요는 물론 영적인 필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개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하여 힘씁니다. 이 관대하고 이타적인 봉사로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고 드러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하느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루카 8,4-15 참조). 이러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증언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반포 60주년을 기념하는 성 요한 23세 교황 성하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의 다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존, 육신 전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양식, 의복, 주거, 숙식 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의 치료와 그 외 정당한 사회적 봉사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은 병고, 노동력의 결여, 과부 신분, 노환, 실업 등에 처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존 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1항).

말씀이 실현되려면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의 진지하고 효과적인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공동선을 위하여 식별하고 봉사하는 데에 따르는 온갖 제약과 때로는 정치적 실패에도,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가치를 믿는 시민들 사이에서 연대와 보조성의 정신이 꾸준히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공적 제도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줄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위로부터’ 받으려고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이들 또한 변화와 책임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가난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 휘말린 사람들, 특히 평온한 현재와 품위 있는 미래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상황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며 정의와 대화를 위한 헌신의 열매인 평화를 증진하고자 끈기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입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극적인 물가 급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수입은 빠르게 바닥나고 모든 이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는 희생이 강요됩니다. 어떤 가정이 영양 섭취를 위한 음식과 병원 치료 사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면, 이때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두 이익 모두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계 안에서 빚어지는 윤리적 혼란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노동자에게 가하는 비인간적 대우, 노동에 대한 부적합한 대가, 고용 불안이라는 참상, 그리고 때로는 안전한 일터보다 즉각적 이익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과도한 재해 관련 사망자 수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강조하신 다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인간 자신이라는 것을 뜻할 뿐이다. 아무리 인간이 일할 운명을 타고났고 소명을 받았다 하여도 우선적으로 노동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노동하는 인간」, 6항).

그 자체로 심각한 괴로움인 이러한 형태의 가난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빈곤의 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두드러지는 가난의 형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낙오된 패배자’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문화는 그들에게 허상을 만들어 내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자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치명적 영향에 대항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너그러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도웁시다.

가난한 이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수사적 과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통계와 숫자라는 수준에 머물러는 교활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는

인격체로서 얼굴, 이야기,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지닌 우리의 형제자매이므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빗기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느끼는 데 요구되는 화합을 촉진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저 재빨리 내미는 도움의 손길 이상입니다. 이는 가난이 훼손한 올바른 상호 인격적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자비와 애덕의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복음의 현실주의로 특징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지 남아도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식별이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희망과 열망이 아닌 우리 형제자매의 진정한 필요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류애, 사랑에 열려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코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 뵙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198항). 신앙은, 모든 가난한 이가 하느님의 아들딸이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올해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L'Histoire d'une âme)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애덕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아 견디며, 그들의 약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극히 조그만 덕행까지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임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고 즐겁게 하여야 하는 애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Ms C, 12r°).

우리의 집인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이가 애덕의 빛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데레사 성녀의 굳건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이며 신적인 면모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기를 빕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프란치스코



♥ "죽음"은 예수님과의 만남 (최영숙 데레사)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내려가면서 몸은 걷고 정신은 날뛰고 마음은 달리고 영혼은 웃으며 허무하게 흘러가버린 세상살이 인생살이 한탄만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죽음이 영혼을 구원하시네!

주먹 쥐고 울며 태어나 손 놓고 웃으며 가야하는 인생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쉬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돋아나듯 사람도 세상에 왔다 죽어야만 예수님과 부활하는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사시겠네!

위령의 달 위령의 날은 산 이와 죽은 이가 소통하는 날 조상부모님과 세상을 떠난 이들과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연미사와 연도를 봉헌한 후 묘소에 꽃과 촛불을 밝히고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평화안식과 천상행복을 간구하네!

장례미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며 세례로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믿음의 희망을 갖게 되고 죽은 이의 몸이 성령의 궁전이니 영혼부활을 믿게 되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이웃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게 하시며 인생의 사계절이 지나가면 믿음의 본향으로 초대하시네!

세월만 따라오던 인생길에 황혼이 찾아와 노을이 지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정신까지 나가 일상이 고통뿐인데 홀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에 예수님 만나니 외롭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광이요 영원한 축복이네!



✦ 죽음! 무엇이 두려운가

(손영순 까리따스 수녀 /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이며 자기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중대한 사건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처하게 될 육체적인 고통, 통증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육체적 고통이란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신체 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불편한 감각적 혹은 감정적 경향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같은 아픔을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별의 고통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의 공통적인 두려움의 현상이다. 혼자 죽어야 한다는 외로움은 한 생애에서 함께했던 모든 이들과의 안타까운 이별이 명료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떠 올릴 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이야기 한다. 떠나가는 이들 뿐만 아니라 남겨질 이들에게도 이 이별의 고통은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가야한다는 두려움이다.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많은 준비를 한다. 그 나라의 문화, 언어, 물가, 세세하게 비행기 타는 법, 위급할 때 대처해야 하는 법 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긴 여행은 다녀온 사람도 없으며 여행 가이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자신의 종교나 문화 안에서 죽음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무지는 삶을 절대화하고 죽음을 피해야 할 악의 원천으로 만들기도 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로 살아왔다. 인간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회라는 것이 구성되었고 또 그 구성된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 소멸되는 사건인 것이다. 많은 죽어가는 이들,

특히 오랜 시간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임종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가족이나 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을 겪는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역할에서의 몫을 다하지 못한 것과 그 몫을 다른 가족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은 사회인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두려움은 아직 자녀를 출가시키지 못한 가정주부들에게 커다란 미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소외감과 배신감

점점 아프고 병이 들고 죽음에 임박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아무도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함께 느끼면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아니 상실 당했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삶의 완성을 위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삶의 여정을 누구에게도 지지받고 격려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임종하는 이들은 새로운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다.

인간은 모두 영적존재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데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공기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렇게 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이 인류에 단 한사람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동물과 다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간과하면서 살고 있다.

시실리 손더스는 영성적 고통이란 무의미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영성적 고통은 힘과 희망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나 가치체계의 붕괴를 경험하는 위험한 상태이며 인간의 전 존재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삶의 원칙을 붕괴시키는 고통이다. 그 원인은 종교적 문화적 결속으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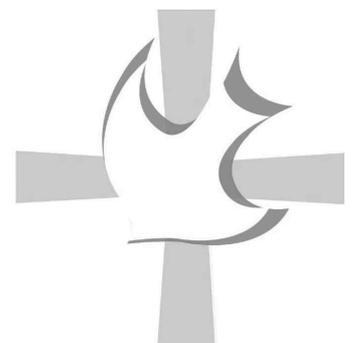
분리와 믿음 및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이다. 물론 이 무의미에 대한 직면이나 삶의 원칙에 대한 도전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환자, 혹은 임종환자들이 겪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심지어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기도 하다. 죽어가는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의 일원도 죽어가는 이 앞에서 특히 무죄한 이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는 같은 영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詩) 에서처럼 우리는 모두 의미가 되고 싶어하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무의미에 직면하는 죽음이라는 사건은 소멸이라는 두려움을 낳게 된다. 이 두려움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며 동시에 내가 남겨진 자들에게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살았는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였는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였는가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 또한 죽음을 부정적 면에서 인식하게 만든다.

죽음의 극복

최근에 본 '버킷 라이트'라는 영화에서 죽음의 세계로 갔을 때 절대자는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 한다. '너는 행복했는가' '너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설 때 영적인 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과연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일까.



연중 제 32 주일
그러니 깨어 있어라
(마태 25,1-13)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적은 없었습니까?
- 언제나 깨어 있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몸은 깨어 있지만 마음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청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은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깨어 있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위령성월 - 연옥 교리 제대로 알기

11월은 위령 성월이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 봉헌과 자선 등이 강조된다. 연옥은 무엇이고,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위령 성월을 맞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위령 성월은 무슨 달인가요?

A. 세상을 떠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정한 달에 특정한 신심을 복돋기 위해 교회가 정한 한 달 동안의 특별 신심 기간을 성월(聖月)이라고 하는데, 이 중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달입니다.

Q. 왜 11월이 위령 성월인가요?

A. 998년 클뤼니 수도원의 오딜로(Odilo) 원장은 수도자들에게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널리 퍼지면서 11월 한 달간 위령 기도가 많이 봉헌됐고, 이런 이유로 11월이 위령 성월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하느님 나라를 완성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고, 위령의 날은 연옥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이기에 이 양일을 통해 지상 신자들은 삶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Q. 위령 성월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선행을 강조합니다. 지상 신자들이 기도하고 속죄 행위를 하면 죽은 이들의 빛을 대신 갚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위령의 날 모든 사제가 모든 연옥 영혼을 위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3대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신자들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영원한 벌(영벌)과는 반대로 일시적으로 잠시 받는 벌(잠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인데요. 이를 받으려면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도 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통공은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공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는 뜻으로, 지상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죄의 용서와 정화가 필요한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결합돼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루며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나누고 기도 안에서 영적 도움을 주고받음을 말합니다.

지상 신자들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믿는 등 교회는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기에 위령 기도가 가능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Q. 기도로 연옥 영혼들이 천국에 가도록 도울 수 있나요?

A. 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이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연옥’은 종종 어떤 장소로 오인되곤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다 치르지 않은 영혼들은 천국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전 이를 정화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54항에 따르면, 하느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합니다. 연옥 영혼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저지른 악한 행동 등에 대해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를 느끼고 삶을 돌아보게 되지만,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에 지상 신자들이 단식과 기도, 선행, 무엇보다 미사 성제에서의 성체 성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정화의 고통을 겪은 영혼들은 하느님 시선을 천상의 순수한 기쁨

속에서 마주 보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느님을 직접 봄으로써 천국의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지복직관’(至福直觀)이라고 합니다.

Q. 연옥에 관한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나요?

A.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옥 교리를 특히 피렌체공의회 (1438~1445)와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에서 확정했는데, 성경 구절들로 연옥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2마카 12,45)라는 죽은 이들을 위한 속죄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교구 미헬 레메리 신부는 책 「하느님과 트윗을」에서 “이들이 만약 지옥에 있다면 기도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천국에 있다면 기도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틀림없이 연옥이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미헬 레메리 신부는 “이는 신약 성경에서 더 분명해진다”며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영혼 구원과 관련해 ‘불 속’(1코린 3,15), ‘불로 받는 단련’(1베드 1,7)을 말했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마태 12,32)이라고 하셨다며 “예수님 말씀에서 어떤 죄는 사후 즉 우리가 연옥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Q. 위령 기도가 지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위령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1요한 1,8),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누구든 얼마든지 연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령 기도를 하면 연옥 영혼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잊지 않고 필요한 은총을 빌어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 「생활교리」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을 즐겨하시기에, 서로 공(功)을 통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어 우리의 기도와 성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위령 성월, 지상·천국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김권최 점우효 선애진	17일	엘리사벳	허오박김 영세가에리 란속람자
5일	엘리사벳	송한김(이 옥경경사 자자미벨)	22일	체칠리아	김이이신김 애영석지효 란희희혜숙
10일	레오	최김허추 김현주연 용일진구	30일	안드레아	김권지 영지연
17일	빅토리아	김귀자 숙옥		안드레아스	김삼성김 허길조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김하준(H)	22일	체칠리아 (마리 세실)	조영실(B)
16일	젤트루다	김순자(B)			
17일	엘리사벳	이경희(O) 이복순(O)	24일	플로라	유혜선(B)

❖ 11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416	211	163	417
12일	439	212	167	446
19일	51	216	175	6(2-3절)
26일	39	512	169	82

❖ 11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	커피봉사
5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박종래 (바오로)	4구역
12일	요셉마리아회	요셉마리아회	박종래 (바오로)	요셉마리아회
19일	비르지타회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박성아 (베로니카)	1구역
26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매자(베로니카)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박성아 (베로니카)	2구역

♥ 10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수잔나, 정마리아, 한말조, 정명옥, 심동근, 강순행, 박춘실, 조영희

✿ 공동체 계좌 입금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강신행, 이경규, 신유경,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부남, 이호준, 손수희

✿ 교구 계좌 입금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최화영, 이공중,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이경란, 김영복, 남궁춘배, 이영원, 김진호, 허채열, 최성자, 배성우, 김원자, 강일남, 김정숙, 육종인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20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7.099,91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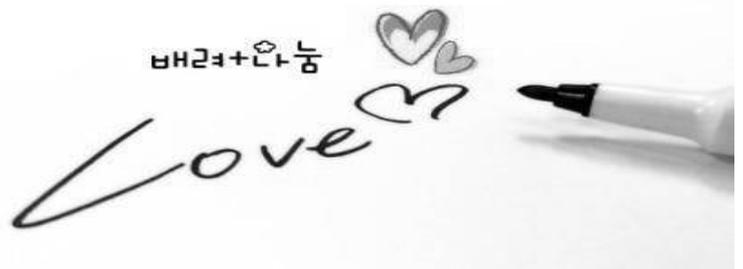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 2일(목)은 위령의 날입니다.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기도(10시 30분)와 함께 위령미사(11시)를 Friedhof-Ohlsdorf Kapelle 13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후 선종하신 교우들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무덤축복과 함께 연령회에서 준비한 꽃과 촛불을 봉헌합니다. 미사 장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다른 묘원에서 무덤축복을 원하시면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1월 19일 주일은 Diasporasonntag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Diaspora라는 말은 유배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소수 민족으로 살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독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Diasporasonntag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11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4일 브레멘, 11일 오스나브뤼크, 18일 하노버, 25일 노르웨이(오슬로)



사 목 협 의 회	매일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올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성 가 정 학 교	매일 셋째 주일 14시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일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11월 - 3월 주일 13시30분 ~ 14시30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일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셋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올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11 월 행사 표

(위 령 성 월)

2023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수	모든 성인 대축일		배기현 주교, 전주홍 신부
2	목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위령의 날 미사 (11시, Ohlsdorf Friedhof)	
3	금			신명균 신부 금육
4	토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브레멘	정중규, 윤행도 신부
5	일	연중 제31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6	월			김용민 신부
7	화			
8	수			
9	목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장민현 신부 故최동오(아타나시오) 신부 14주기
10	금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하춘수, 이재혁 신부 금육
11	토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12	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13	월			故김병운(라이문도) 신부 25주기
14	화		꾸리아	
15	수			
16	목			
17	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금육
18	토		하노버	김석좌, 구병진, 김유겸 신부
19	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공동체 총회 성가정 학교 요셉마리아회 · 청년회 월례회	
20	월			
21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故김한주(마르코) 신부 22주기
22	수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3	목			이원태 신부
24	금	성 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금육
25	토		노르웨이(오슬로)	
26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사목회	성서주간
27	월			
28	화			
29	수			
30	목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조명래, 김길상, 이재열, 김현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